

(주소) 16488 /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(전화) 031-231-7200 (팩스) 031-231-7240

배 포 일	2025. 2. 24.	쪽수	사진	누리집	자료 문의
보 도 일	배포 즉시				
경기문화재단, 유정주 신임 대표이사 취임		2쪽	2	www.ggcf.kr	부서 : 홍보마케팅팀 담당 : 장효진 전화 : 031-231-7262

경기문화재단, 유정주 신임 대표이사 취임

- ▶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연계를 통한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
- ▶ 창작자 중심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 및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
- ▶ 경기도 31개 시·군의 문화자원 연결로 지역 문화 경쟁력 제고

경기문화재단은 2025년 2월 24일 유정주(49) 신임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. 유 신임 대표이사는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, 임기는 2년이다.

유정주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·영화 창작자로서 출발해 제작사 대표,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, 제21대 국회의원(문화체육관광위원회) 등 문화예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.

유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"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31개 시·군의 문화예술 자원을 연결하고,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"며, "경기문화재단의 2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이 경기도의 경쟁력이 되고, 예술인과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"고 밝혔다.

또한 유 대표이사는 "문화예술이 단순한 창작 지원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"며, "청년 실업, 고령화,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문화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,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"고 강조했다.

경기문화재단의 비전과 관련해 유 대표이사는 "문화예술과 생활문화가 서로 긴밀히 연계

될 때, 문화예술이 도민의 삶 속으로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다"며, "예술가들이 창작한 작품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역의 생활문화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"고 밝혔다. 또한 "경기도 31개 시·군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이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유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인 지원과 관련해 "문화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도민들이 더욱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"며, "소외 계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제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마지막으로 유 대표이사는 "경기문화재단이 도민과 문화예술인, 그리고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'문화의 허브'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"며, "현장에 답이 있고, 사람이 기적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"고 포부를 밝혔다.

한편, 유정주 신임 대표이사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기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,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. 상명대학교 영화학과 및 계원조형예술대학 영화학과를 졸업한 후, 애니메이션 및 영화 제작사 대표로 활동하며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. 이후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추진해온 바 있다.

